

특별리포트

김제 장미애 친환경농산물 주무관
의무자조금 출범 기여로 장관표창

김제시 장미애 친환경농산물 주무관은 지난 5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출범식에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친환경농업 의무자조금 출범을 계기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의 본격 추진을 기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 유기농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북연합회
전북농민대학·선도농가워크숍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북연합회(회장 강경래)에서는 6일 오전 10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 2016년도 전북 농민대학 및 선도농가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가치를 내걸고 196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반세기 동안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촌복지향상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복 김제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농업기술자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쌀 재고량 증가와, FTA 체결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지혜를 모아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경찰서 낙석우려지역 점검

장마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진)가 강풍·강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및 낙석우려지역에 대해 일제점검을 펼쳤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신호기 누전 차단기 등 정상작동 상태, 신호등 맨홀에 전선 접속불량으로 인한 누전 발생 여부, 신호등 지주 및 부속대 불필요한 안전표지 제거 등 시설물 파손대비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안면 바드제, 우슬재,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절개지 낙석위험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다.

이와 함께 부안서는 낙뢰로 인한 신호기 고장이 나면 신속 출동 대응방안 및 비상출동체계도 구축과 부안군청, 신호기보수업체 등과 함께 현장점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에 따르면 최재필 대표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통명차 제조 부문 '대한민국전통명장' 인증서를 받았다.

최재필 대표, 수제차 명장 선정

재배 북방한계선에서 자란 찻잎 전통방식으로 정읍 태산명차 제조

태산명차의 최재필 대표가 (사)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에서 인증하는 '대한민국전통명장'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최대표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통명차 제조 부문 '대한민국전통명장' 인증서를 받았다. 대한민국전통명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통문화의 각 분야별 장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차 제조 부문 명장은 최 대표를 포함 모두 2명이다. 최 대표가 생산하는 태산명차는 차 재배 북방한계선과 높은 해발에

위치한 청정지역에서 자란 찻잎을 전통방식으로 만든 정읍수제차이다. 최대표는 특히 녹차와 발효차 뿐만 아니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의 기술 제휴를 통해 여주차와 구절초차 등 기능성 대용차 제조와 관련한 탁월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차 만들기 체험 운영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차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다도예절 인성교육과 다례시범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바른 차 문화와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있고, 어른들에게는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통다례의 맛을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최 대표의 차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차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정읍 자생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전통명장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더 정읍 차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관련 의견수렴

문체부자문단, 정읍·고창 등 반발 지역 방문·방안 논의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 주화약일(6. 11)로 지정하려는 문체부 학계자문단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정읍·고창 등 도내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문체부 관계자들이 정읍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이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감오농민동학혁명 유적보존회 등 정읍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읍시를 방문, 올바른 기념일 제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단체 대표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한 기념일 제정을 원하고 역사적 사실도 규명되지 않은 전주화약일 기념일 제정을 반대한다."며 고 부부기일과 황도현 전승일의 역사성 및 의미를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그간 정읍시·시의회·동학관련단체는 전주화약일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읍시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문체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등 다각적으로 전주화약일 기념일 제정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해 왔다. 정읍 동학관련단체는 "앞으로도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고창 동학 단체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와 현지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읍시,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

정읍시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도 10가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 등 총 10가정을 선정했다. 이들 가정 중 5가정은 현재 고향을 방문 중에 있고, 5가정은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말 방문 예정인 태인면 이민정(31, 베트남)씨는 "가족과 고향을 방문해 친정식구와 친구들과는 만날 생각을 하니 꿈만 같다."며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 고향에 갈 염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정읍시에서 기회를 줘 감사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32, 필리핀)씨는 5년 만에 고향을 방문해 "꿈에도 그리던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보건소, 보건진료소 안전망 강화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박래만)는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안전 근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거주 현황, 안전관리 실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25개소로 모두 여성 전담 공무원이 혼자 근무 중이며 범죄피해 위험성이 노출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점검결과 무인경비시스템, CCTV, 긴급 출동 가능한 비상벨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상사태를 대비해 김제경찰서와 연계 상시 순찰강화, 긴급 출동 가능한 지역파출소를 지정 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성폭력 범죄에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성폭력 범죄가 없어질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1차 보건진료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채종남 면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직원들이 응급복구에 나섰다

부안 주산면, 집중호우 피해현장 응급복구

부안군 주산면 전 직원들 장마철을 맞아 폭우 피해현장을 방문해 재해에 방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일 주산면은 기상청 예보결과 오후 6시 기준 주산면 강우량은 시간당 50mm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 채종남면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직원들이 응급복구에 나서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특히 직원들은 신성마을 배수로, 소주·인천·부동마을 농경지, 구담마을 측사 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

장을 찾아 각종 장비 투입해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범람이 예상 되는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수해 관련 현황을 정리해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피해최소화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채종남 주산 면장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으려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차마칠 막힌 배수로 등 내 집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피해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주산면 동정리 388-22번지에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부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공식

12월 준공 목표로 16개 시설 조성

부안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공식이 지난 5일 주산면 동정리에서 노점흥 부안군 부군수와 오세웅 부안 군의회 의장, 한 울안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부안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내 유일하게 장애인 거주시설이 없는 부안군은 기초지자체로 이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은 장애인에게 재활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주산면 동정리 388-22번지에 들

어서게 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6억 원을 투입해 3392㎡의 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1076여㎡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되며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개의 생활시설과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으로 조성된다. 노점흥 부군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완공되기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시공돼 장애인에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교월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대비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장마철과 무더위가 이어지는 7월과 8월 사업진행간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중증장애시설소관중후군 예방수칙과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